## 공동주택 공시가 광주 0.2%·전남 3.8% 올라

# 광주 가장 비싼집 35억5000만원

〈금남로 5가 故 박인천 회장 자택〉

### 전남은 목포 유달동 이훈동씨 자택 7억6700만원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토해양부와 광주시·전남도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0.2% 올랐다.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가 지난해에 비해 0.6%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동구도 0.2% 올랐다. 반면,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0.2% 하락했다.

전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8% 상승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산단 개발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광양(9.0%), 여수(4.8%), 순천(4.6%)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화순(6.8%)도 광주~화순광역철도 건설 등 호재로 전년도에 비해 올랐다.

무안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1.5% 하락했다. 기업도시 등 개발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남악신도시 내 산적한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분양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등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광주·전남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첨단비버리힐스 연립주택 367.7㎡(전용면적)로 4억6200만원이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학동 더 모스트라이프 아파트 211.9㎡가 3억7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편,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올랐다. 광주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8% 상승, 전남은 0.93% 올랐지만 전국 평균(1.92%) 상승률보다 낮았다. 광주에서는 서구(1.46%)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동구(0.88%), 남구(0.81%), 북구(0.58%), 광산구(0.3%) 등이다.

전남에서는 구례(5.24%), 여수(2.23%), 강진(2.13%) 등 16개 시·군이 올랐고 화순(-0.15%), 곡성(-0.98%), 보성(-0.67%) 등 6개 시·군은 하락했다.

광주에서는 금남로 5가 금호문화재단 소유의 주택(고 박인천 회장 자택)이 35억5000만원으로 최고가 자리를 지켰고, 전남에서는 목포시 유달동 이훈동씨 자택이 7억6700만원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면 되고, 해당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가격이 재공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아 중형세단 'K5' 출시… 본격 시판

기아자동차는 29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0 부산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중형 세단 'K5'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K5'는 '로체'이후 4년5개월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로, 총 4000억원을 들여 4년여동안 연구개발해 완성했다. '미래감각 다이나믹 세단'을 콘셉트로 카리스마 넘치는 역동적 스타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연비, 최고의 안전성과 다양한 최첨단 사양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6만8000대(국내 3만5000대, 해외 3만3000대)를,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총 18만대(국내 7만대, 해외 11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가격은 2.0 모델 2145만~2725만원, 2.4 모델 2825만~2965만원, LPi 모델 1580만원~2035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가정의 달 光銀과 함께

### 어린이 고객 금리 우대

### 효도송금 수수료 면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사랑적금'에 가입하는 13세 이하 어린이 고객은 연리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의 기존 금리(1년)는 3.1%다.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다음달 3~14일까지 고객이 부모에게 1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타행)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60세 이상 고객은 창구에서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장재발행 수수료도 없다.

어버이날을 앞둔 다음달 7일에는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도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리고기 없어서 못 팔 지경"

### 3개월새 1617만마리 유통

### 농협 '오리데이' 할인판매

올해 들어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지 가격도 치솟고 있다. 29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1~3월 유통된 오리고기는 1617만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유통된 836만마리의 두 배에 육박했다.

오리 소비량은 2008년 4841만마리에서 지난해 5447만마리로 12.5% 늘었다. 국민 1인당 1년에 오리 한 마리씩은 먹은 셈이다.

농협 관계자는 "오리는 특히 여름철에 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1억마리 가까운 오리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업체는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오리 가격도 뛰어 산지의 새끼오리 값은 1월 1000원이었으나 4월에는 140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오리 1마리의 산지가격(3㎏ 기준)도 작년 말 6200원에서 최근 7700원으로 올랐다.

한편 농협과 한국오리협회는 '오리데이'(5월 2일)를 맞아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의 대형 하나로클럽에서 오리고기 일부 품목을 시중가격에 비해 최대 20% 싸게 파는 행사를 진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光銀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개시

### 계좌조회·자금이체 등 금융거래 제공

광주은행 등 전국 주요 은행들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조회와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KJB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외환·대구·부산·전북·경남·기업·농협 등 8개 은행도 서비스를 도입한다.

광주은행은 예금조회, 이체서비스, 신용카드 조회 등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 데 이어 6월말부터는 펀드, 대출거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스마트폰 뱅킹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3개월 면제해준다.

광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뱅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 PC의 공인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는 윈도우 모바일용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14일부터는 아이폰 사용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나머지 은행들은 옴니아폰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아이폰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작동상 이상 유무 점검 및 최종 테스트를 거쳐 5월 중순까지 차례로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시행으로 지역 고객들의 편익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농협전남지역본부

### 경제사업 최우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경제사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1·4분기 전국 8개 도단위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축산물판매, 영농자재 공급 등 15개 부문 경제사업을 평가한 결과 이 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농협 폴 주유소 확대 운영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 등을 바탕으로 산지유통체계 구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